내가 한다는 생각 없어야 참 수행

☞ 19면에서 계속

로 잡념과 욕심이 많아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과거 의식은 직장에서 저를 불안과 초조, 그리고 불만 등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최근 며칠동안 직장에서의 불만과 함께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만 두려고 하니 현재 처한 경제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만 두려는 마음조차 주인공이 이끄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되는 갈등은 결코 내면에서 이끄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몸을 있게 한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그리고 한결같이 내 안에서 안스럽게 바라보는 주인공 생각에, 내가 너무 내 안의 소중한 존재들을 못살게 굴고 있었구나 하는 죄책감에 진한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과거 의식이 저를 괴롭힐 때마다 스님 말씀대로 '주인공 너만이 이런 습을 녹일 수 있잖아.' 하고 관했었습니다. 그러면 순간 평정을 찾고 괜찮다가 다시 그런 습성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느낀 느낌은 뭐랄까 주인공을 찾는 다기보다는 내 안의 세포들을 이젠 내가 아끼고 사랑하며 보살펴야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를 요청하기 위한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잘 모셔야 할 주인공이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 스스로가 너무나 소중한 자성불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의 느낌에 대한 스님 말씀 청하오며, 항상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답 그렇죠. 참 자기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한테 숭배를 해가면서 해야겠지요. 바로 자기 조상이니까요. 그러니 위대하게, 겸손하게 보필하면서 믿어야 된다 이겁니다. 진정 믿어서 그것이 완전히 둘이 아닐 때에, 애비가 자식이고 자식이 애비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애비면 그냥 애비지 왜 애비자 자식이고 자식이자 애비라고 그러느냐? 불이법(不二法)이 그러하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높은 일도 있고 낮은 일도 있고 아주 아래의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자식이 없다면, 이건 뭐 진리라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나라의 일도 그렇고, 모든 게 삼위일체로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법은, 즉 말하자면 아버지의 일을 할 때는 아들이 아버지로 돼 주고, 아버지 아들이 둘이 될지언정 하나다 이겁니다. 아들이 일할 때는 아버지가 아들로 하나가 돼 주고, 뱀이 일할 땐 스님이 뱀이 돼고 또 스님이 일할 땐 뱀이 바로 스님이 돼고, 사자가 스님이 돼 버리고 스님이 사자가 돼 버리고, 코끼리가 사람이 돼 버리고 사람이 코끼리가 돼 버리고. 그게 마음은 하나인데 수천 수만 가지로 생각을 낼 수 있으니 그 모습조차도 바뀌지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 몸 속에 들어있는 그 의식들을 업신여기고, 그게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둘이 아니라고 해야 될 텐데, 아니, 자기 몸 속에서 지금 수 십억 개가 지금 움죽거리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부분만 없어져도 자기는 없어지는데, 그렇게 의식의 이름도 많고 생명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따진다면 한마음이라는 게 제일 편리하죠. 수 십억에 달하고 그 모든 중생을 '한 마음!' 하면 바로 한데 뭉쳐지는 거니까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정신이라면 정신과 마음내는 거와 움직이는 육신이 삼합이 동시에 돌아가는 그 자체를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딱 뭉쳐서 든다면, 그 하나에 모든 겹가지들이 다 따라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다 해결을 하고 나가신다면 인생의 진정한 맛을 느끼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항상 관하라는 말씀의 뜻

문 선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마음공부를 하는 데 있어 희망의 빛을 발견하였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기도나 염불이나 참선 등의 방편에서 일심(一心)으로 삼매의 경지에 이르면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공을 항상 관하라는 스님의 법문은,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항상 주인공을 관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 한 번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 동생이 형을 보고 "형"하면 금방 형이 되죠? 그러고 부모가 부르면 또 아들이 되죠? 아내가 부르면 남편이 되죠? 자식이 부르면 아버지가 되죠?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건너뛰면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생활 자체가, 진리 자체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과 몸 안에 있는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공했다는 거예요.



그림 · 최주현

단 한마디라도 진실해야 힘 담겨

보리 – 망상 둘 아니니 분별 말라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고, 아프면 병이 낫게 해줄 수 있다고 관하세요. 사회에 살면서 좀 걸리는 게 있으면 거기다가 다 맡겨서, 보디가드한테 맡겨서 일을 처리해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이십사시간 살아 있죠? 죽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십사시간이 그냥, 이십사시간뿐만 아니라 자는 것도 참선, 일하는 것도 참선, 서 있는 것도 참선, 앉아 있는 것도 참선, 일거수 일투족이 다 그렇죠. 이십사시간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면서 살림하는 게 전체 참선이고 공부라는 걸 그대로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려면…

문 스님,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먹고, 공부하고, 선원이라면 청정해야 하고,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 등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가짐을 어떻게 담아야 합니까? 남에게 미안한 일이 있으면 말뿐 아니라 마음으로 사과함을 가져야 하는데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허우적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나를 이해해 달라고까지 한다면 지나친 것이겠지요? 미안한 것도 미안한 것이지만 나 자신을 내세워야 할 때는 내세워야 하는데 매사가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답 진실한 것은 자기만 알면 될 뿐, 누구더러 알아 달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알아 달라고 하는 것도 습이예요. 그것도 인과가 되는 것이지요. 알아 달라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으면 우주법계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남이 뭘 알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부처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바깥에서 허우적거리며 찾고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부처님께 누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몸 가지고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괜한 소리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단 한 마디의 말일지라도 진실한 말이어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으로나 밖으로나 오직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마음을 지니고 진실하게 행을 하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경계 끄달려 간절하지 못해요

문 쉽게 경계에 끄달리는 자신을 보면서 믿음의 깊이가 얕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공부의 도리를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는 와중에서 이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참구하는 마음에 대해서입니다. 제 마음이 여우와도 같아 좋은 것이 있으면 아상이 생기고 나쁜 것이 있으면 노예와 같은 마음, 중생상이 생깁니다. 물론 이조차도 주인공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아야겠지만 이토록 경계에 끄달리는 것이 평소의 행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평소에 주인공을 진실하고도 간절하게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계가 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이란 게 제게는 아직 항상 하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든 일거수 일투족에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절실함이 항상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것조차 망상이며, 제가 공부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인지요? 화두가 따로 있을 수 없지만, 화두를 든 사람의 우직하게 참구하는 마음을 깨우치고 싶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항상 부처님과 스님을 비롯한 제대 선지식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답 그렇게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가 붙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도 아니고, 이것을 안 해야겠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있다면, 오직 근본을 믿고 여여하게, 육신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살게끔 한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맡기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둘 아니게 탁 믿으세요.

그것을 일일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일체를 움죽거리게 하는 것은 사실 그 자리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모두 송장들일 겁니다.

자기가 송장을 움죽거리게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빨리 해라, 늦게 해라 할 것도 없고, 잘돼야 한다, 못돼야 한다 할 것이 없는 거죠. 자기가 그대로 사는 거니까, 이것을 절실하게 믿어야 하고 간절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급하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냥 무조건 믿고 닥치는 대로 거기 놓으세요. 되게 하는 것도 오직 너다 하고 놓고, 감사하게 놓으세요. 모든 게 그렇게 그냥, 마음이 급하고 급하지 않고를 떠나서 닥치는 대로 밀어 넣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세요. 거기에 진짜 묘미가 있는 겁니다. 서둘면 눈 앞이 캄캄해지는 거니까, 마음을 순일하게 가지시고 오직 진실하게 믿으세요.

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문 스님의 가르침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신통치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체를 주인공에 믿고 맡기고 관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는 하려고 하고있으나 실제 실행을 하다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좀더 나은 방법인지, 흐트러지고 시작도 끝도 없이 모호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질문 드리오니 생활하면서 늘 실천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답 여러분이 가정에서 불을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누를 때 '불을 켜야 하나?' 하고 불을 켭니까? 안 그러시죠? 전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전구가 모두 가설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불을 켤 뿐입니다. 방바닥에 물이 떨어졌으면 아무 소리 없이 걸레를 갖다가 닦을 뿐입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도 아무 소리 없이 그저 냉장고 문을 열고 꺼내 먹거나 "나 물 좀 줘." 해서 그냥 마실 뿐입니다.

거기 무슨 이유가 붙습니까? 목이 말라서 물 달라는데 무슨 이유가 붙느냔 말입니다. 내가 먹어야 옳으냐 안 먹어야 옳으냐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물에게 물어 봅니까? 내가 너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고 물어 보고 먹습니까? 목마르면 그냥 마실 뿐입니다. 이유가 붙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한다고 하면 수행이 아니지만 주인공이 한다고 하면 수행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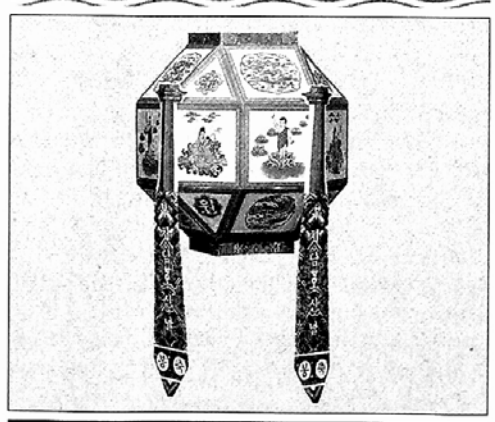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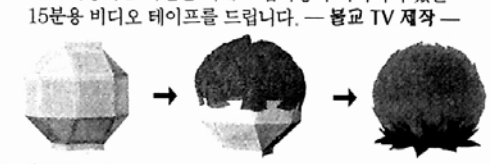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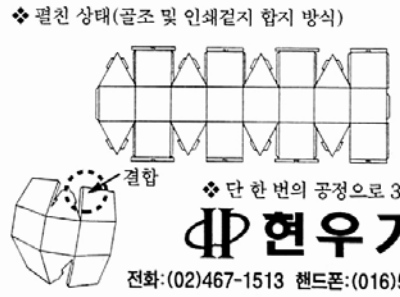
인생이 한 철이에요, 한 철! 우리가 인생 한 철을 아주 급급하게 매달려서는, 빨리 가는 길이 뭔가, 남보다 앞서는 길이 뭔가 이런 것만 살피고 산다면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가 빠져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지든 제쳐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 몽땅, 자기 몸뚱이는 자불(自佛)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그냥 다 맡기고 편리하게 놓고 살아가세요. 그렇게 이 한 철 사는 동안 공부한 것으로 인해 세세생생 돌아가고, 세세생생 돌아가는 그 위치의 권한으로 인해 위로는 먼저 가신 조상님을 다 건질 수가 있고 아래로는 후손들을 다 이끌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흥락하게 살 수 있으려면 좋은 길 나쁜 길을 따지기 이전에 그냥 그 자리에 놓는 마음이 되어야 할거라고 봅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東國大學校 釋林同門會
주소록 정리작업 안내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에서는
동문회 주소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신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문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동문회에서는
홈페이지를 개설,운영 중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회비를 납부하실 동문께서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회장 법조 합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1번지
전 화 : 02-737-0408
팩 스 : 02-720-0050
http : // www.sukrim.or.kr
회비 납부 :
국민은행 023-01-0562-081
예금주) 석림동문회

서북 토종 오가피농장
"한줌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 (P 1732)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숲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전화 : 031)682-5033 FAX : 031)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외환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연등초벌용 8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낱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전화:(02)467-1513 핸드폰:(016)552-9360